

제 15 호

사순절 제 1 주일

1973. 3. 11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사순절과 쇠탁동시 (碎啄同時)

김 영 일 신부

“쇠탁동시(碎啄同時)”라는 문구를 해석해보면 부수는 것과 찌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뜻입니다.

20일 동안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알속에서 제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시기가 되면 밖으로 나오려고 자기 입부리로 껍질을 깎고있을 때 어미닭은 시기를 노철세라 밖에서 껍질을 쪼아 부수어서 병아리를 세상에 낳게 하는 것을 쇠탁동시 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줌으로 40일 동안에 제나름대로 준비가 잘 된자에 한해서 신앙의 기본이되는 부활에 참여시켜 준다는 교회의 예전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사순 첫 주일부터 우리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십일 동안 엄게 하시면서 마귀에게 세번 썩이나 유혹을 당하는 장면과, 이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일동안 교회 품안에 안겨 있으면서 마귀 병아리가 되기위해 자기 자체로써 20일 동안 할 일을 마치고 껍질을 쪼아 생명을 잉태하듯이 무엇을 위해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즉 40일 동안 예수님은 천주성부의 뜻을 포기하고 당신 자신의 쉬운길로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과식이 생기게 될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게 아니고 천주님의 말씀에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속 물질이나 허영심이 발동할 때에 천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 질때에도 역시 네 천주께 공경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같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마련해 주시면서, 자신은 힘을 쓰지 아니하면서 천주님의 은혜나 기적만 바라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이 마다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방향 제시에 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알려고 힘쓰는 그 자체가 바로 병아리가 되기까지 노력 하면서 껍질을 쪼았을 때 교회는 그에게 부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들어 갈 준비를 하는 우리로써 “쇠탁동시”라는 이치를 적용하면서 평소애 우리는 약간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기구와 재소와 자기를 깨달게 노력 하라는 것입니다. <서학동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를 구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오랜 세월로 그를 가득 채우리라.

□ **독서** (베드로 전서 3:18-33, 성서 P. 533)
너희는 세례로 구원된다.

□ **창계송**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이오라,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겸손한 자 의를 따라 걸게 하시고 겸손한 자 당신 도를 배우게하시나이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이에게는,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오이다.

□ **복음 전 노래**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다.

□ **복음** (마르코 1:12-15, 성서 P. 75)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다음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성실한 목자로 살다가 당신 품에 안기신 당신의 충직한 중 한공렬 대주교님을 위해 비오니 그에게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주여,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잘못때문에 당신을 멀리하게된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3. 주여, 이 사순절 동안에 하는 우리의 적은 교행이 당신의 뜻에 맞닿을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주소서◎

■ **맺음 기도** 기도합시다 천주여, 너 이미 죽은 한공렬 베드로를 중도 무리의 반열 중에 두사, 이 세상에서 주교위에 오르게 하시지라, 구하오니 저들과 한가지로 영원히 모이게 하소서. ◎아멘

□ **영성체송**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도다.

※ 이 주간의 성경 ※

12 (월)독서 (로마서 8: 1-11, 성서 P. 351)

복음 (마테오 25: 31-46, 성서 P. 62)

13 (화)독서 (로마서 8: 12-17, 성서 P. 351)

복음 (마테오 6: 7-15, 성서 P. 11)

14 (수)독서 (로마서 8: 18-25, 성서 P. 352)

복음 (루 가 11: 29-32, 성서 P. 160)

15 (목)독서 (로마서 8: 26-30, 성서 P. 352)

복음 (마테오 7: 7-12, 성서 P. 14)

16 (금) ※ 금육의 날

독서 (로마서 8: 31-39, 성서 P. 353)

복음 (마테오 5: 20-26, 성서 P. 8)

17 (토)독서 (로마서 9: 1-5, 성서 P. 354)

복음 (마테오 5: 43-48, 성서 P. 10)

□ 성성식 □

✽ 안내 말씀 ✽

살가 아뢰웁니다.

1931년에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 교구로 설정된 전주 교구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40여년을 지나온 오늘, 제5대 주교님을 모시는 기쁨이 우리 5만여 교우와 성직자, 수도자들의 것만이 아니기에 빛을 들었습니다.

새로 뽑히신 하느님의 일꾼 김재덕 주교님을 모시는 이날의 영광을 더욱 빛내주십시오.

이 날은 특히,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참 뜻을 더 잘 알아 듣기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안에 일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3. 3.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협의회

회장 송 영 선

✽ 일 정 ✽

서품 및 착좌식

때: 1973. 3. 19 (월) 오전 11시

곳: 절 주 중앙 천주교회

축하식

때: 1973. 3. 19 (월) 오전 12시

곳: 전 주 중앙 천주교회

축하연

때: 1973. 3. 19 (월) 오후 1시

곳: 전 주 가 톨 릭 센터

✽ 집행 부서 ✽

위원장~송 영 선 (사목 협의회 회장)

준비 위원

고광하, 김규승, 김봉호, 김상린, 김정기, 김종순, 김진석, 송영기, 양한승, 유희진, 유낙철, 이동근, 이법상, 이상용, 이태영, 정춘조, 조성호, 이동영, 조해형, 황인담, (가나다순)

총 무~한 상 갑 (사목 협의회 총무처장)

식 장 준 비~양 학 도 외 8명

성당 입장 안내~이 영 회 외 8명

장내 정리 안내~이 경 호 외 8명

성당 구내 정리 안내~이 순 화 외 8명

축하연 연회장 안내~김 재 열 외 8명

내빈 숙소 안내~김 상 철 외 8명

※ 장내 정리상 입장권을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장내정리상 어린이 입장도 불허하고, 사진 촬영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람. 각 본당 사도회장단

□ 양지쪽 □

입 장 권



사람들이 뻑뻑히 들어찬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길을 잃고 엄마를 찾아 물어대는 어린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밀치락 달치락하는 인파 속에서 어쩔줄 몰라 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섰다가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서독 쾰른이단인 전주 공설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집에서 실제로 당해보았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성당 안에서나 음악 발표회장 또는 극장 안에서 칭얼대는 어린아이들의 그것도 역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사람은 누구인가 어린아이를 자라다가 어른이 되면서도 그런 일들을 싫어한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주 섞여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마를 찌푸리게 된다.

우리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의 서품 및 착좌식의 날짜가 3월 19(월)로 결정되었고, 장소도 중앙 성당으로 발표되었다. 5만여 교우 명신도, 성직자, 수도자들의 기쁨만이 아닌 선의의 모든 사람들의 즐거운 일인데도, 한 가지 흐뭇한 걱정거리가 생겼다.

성당 안의 좌석은 800석 뿐인데, 다른 데에서 오실 200여 손님과 5만여 교우, 거기다가 전주 시내만 1만 2천이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일을 책임맡은 교구 사목 협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입장권 발행>

교구장 서품식이 연중행사는 물론 아니요, 우리 교구의 실례만 보더라도 10여년만에 있는 경하스러운 일인데도, 모두 한 마음으로 즐거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섭섭함이란 이루 다할 수 없다.

필시 입장권을 발행하게 되면 서운한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나아가서는 유감스러운 일까지도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800매의 입장권을 31개 본당으로 나누다 보니 제일 크다는 중앙 성당의 3천여 교우에게 할당된 입장권이 겨우 98매이다. 주어질 여건 아래서 좀 더 잘해보자고 한 이 일을 너무나 탓하지 말고, 어디에서든지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 일치 할 수 있기를 빈다. <갑>

성서 성물은 성 바오로 서원 에서

중앙성당 옆 (☎ 7398)

✽ 이전안내 ✽

등산용구 일체 취급

요셉 산악 센터

교우에게 특별 할인

전동 3가 명산 약국 앞

김 대 원 (요셉)

최 씨 관 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 (전화 ☎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네가 진실한 교우라면

오 기 순 신부

네가 진실한 교우라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세상에 태어 나서 신부한테 영세를 했고, 철이 들자 첫 영성체를 했고, 첫고백을 비롯해서 죽을때까지 계속해서 고백성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주일을 위시해서 모든 큰 축일에는 신부님이 바치는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자주 영성체를 해야만 구령할 수 있다.

청년이 되면 신부앞에서 혼배를 해야 한다. 자녀가 생기면 신부한테 영세를 시켜야 한다. 네 부모와 네가 세상을 뜰 때는 신부를 청해다 최후성사를 봐야한다. 장례 때는 사도예절을 청하고 죽은 후에도 역시 신부한테 위령 미사를 청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성직자는 네가 살아생전이나 죽은 다음에도 네게 꼭 필요하다.

네게 이렇게도 꼭 필요한 성직자를 누가 만들었는가? 아느냐? 외국의 아주 가난한 교우들이 만들었다. 그분들도 인간이라 늙고 병들어 차례 차례 세상을 떠나서 신부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신부없는 본당이 날로 늘어난다. 외국에 그 고마운, 가난한 교우들이 인제는 한국교우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성직자를 양성하라고 다시는 원조를 하지 않게되었다.

네게 꼭 필요한 성직자를 누가 양성해야 하느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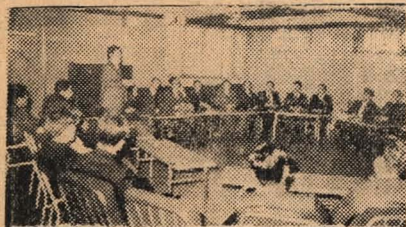
국적으로 우리 성직자는 우리 힘으로 양성하자! 총필기했고 맹렬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본당에서도 교우들이 어려운 중에도 몇만원 몇천원씩 내놓는다. 그런데 너는 단돈 한푼도 내지 않으니 네가 과연 진정한 교우냐? 네게는 신부가 필요치 않느냐?

살아 나가는 네게 누가 성사를 줄것이나? 네가 죽을 때 누가 최후성사를 주며 사도예절은 누가 하고 네 영혼을 위해 누가 위령미사를 드릴것이나? 그렇게 성직자 양성에 협조하지 않아도 양심이 편할 수 있느냐? 무슨 낚으로 성사 주시오 미사 지내 주시오! 할 수 있는가? 네 양심을 드러다 보시는 천주님과 다른 교우들 앞에는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느냐? 네가 죽을때 무슨 염치로 신부를 청하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신부는 네게 꼭 필요하니 성직자 양성에 협력해서 아무리 어렵고 끼니가 간대 없어도 너는 꼭 성직자 양성 기금을 내야 한다. 신부 없이 너는 교우도 아니요, 천주님의 자녀로도 살 수가 없고 구령도 못할 것이다.

네 양심을 살피라! 네가 진정한 교우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천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죽고 최후에 천주님의 품에 안기려거든 너도 성직자 양성을 위해 네 힘대로 기금을 내놓아라! 단돈 일원도 얹어놓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과연 진정한 교우냐? 사람은 속여도 전지하신 천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복자성당 주임신부)



매스콤 세미나 개최

3월 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매스콤 세미나가 있었다.

김재덕 주교님을 비롯한 가톨릭언론인, 언론계 인사, 가톨릭 기관장등 26명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콤의 중요성, 특히 교회와 매스콤과의 관계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 3498)

- 12 (월) 교리 교실-박진량 신부 지도
- 외국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3 (화) 젊은이의 광장-유장훈 신부 지도
- 외국문화 교실 (독어(B), 오후 3:30-4:30)
- " (독어(A), 오후 4:30-5:30)

- 15 (목) 외국문화 교실 (독어(B), 오후 3:30-4:30)
- " (불어, 오후 5~6시)
- 16 (금) 여성교실 (오후 2~4시, 시간엄수 바람)
- ① 불철의 가정위생, ② 레크레이션
- 외국문화 교실 (독어(B), 오후 3:30-4:30)
- " (독어(A), 오후 4:30-5:30)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094

축 발전

동남샤프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한공렬 대주교님 선종 본 교구 제4대 교구장으로 12년간 계시던 한 대주교님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심근 경색증으로 투병하시던 중 3월 7일 오전 10시경에 선종하셨습니다. 기도중에 일치합니다.

말없으신 유해는 지난 3월 8일 주교좌인 중앙성당에 다녀가셨습니다. (영결식은 3월9일 광주에서)

김재덕 주교님 서품 및 착좌식 3월 19일 오전 11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주례로 김주교님의 서품 및 착좌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요셉 신부님들의 영명축일(3월19일)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남호(화산 본당 주임신부), 김종택(덕진 본당 주임신부), 안복진(중앙본당 주임신부), 배영근(교구청 주재신부), 유장훈(성심여중·교종교감신부)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 1. 푸리아 윌레회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임시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사무실)
3. 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신축 화장실 안내 (여러분의 협조로 강당뒤에 신축 했아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1,49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예비자 및 지성인 교리
매주일 공식 미사 후에 오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2. 교무금 납부 요망 재정 고갈로 본당 운영에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 철제 의자 16조 봉헌 (중앙동 홍마리아씨)
□ 지난 주일 성미 (3월9일), 누계 102말 5홉
지난 주일 봉헌금 13,36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1. 본당 신축 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용 조합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윌레회 (3월 18일)
4. 주일학교 교리 (토요일 오후 3시)
5. 성미수집 (사순절을 맞이하여 전개되는. 성미운동에 각 구역 반장님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 학생 봉헌금 (750원), 주일학생 봉헌금 (120원)
지난주일 봉헌금 11,703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철 사도 회장 육낙철

- 1. 미사 시간 변경 (3월 11일부터)
저녁미사 7시~7시 반으로
2. 주교님 성성식 행사 참여 안내
성성식 입장권과 축하연 입장권 신청은 15일까지
3. 반희합 일사 (3월중) 12일-4반, 17반, 15일-1, 2반 13일-3반 17일-16반
4. 축 결혼 (3월 17일, 성가대 참석바람)
신랑 김순동 군과 신부 한금순 양
□ 지난 주일 봉헌금 7,57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학생회 임원 개선
회장 김성수 부회장 김주석, 최인순
2. 신용조합 윌레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본 판공성사 실시 3월 13-전당리, 14일-미산리 15일-내동리, 16일-동산촌
4. 본당신부님 영명 축일(3월19일)
신부님을 위해서 많이 기우하시기 바랍니다.
5. 신용 조합 임원회 (3월 10일, 오후 8시)
□ 출판물 보급을 위한 성금 2,200원
지난주일 봉헌금 4,031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주교님 서품 행사 협조 요망 사도회 임원, 구역장님의 방문이 있었으니 협조 바랍니다.
2. 사도회 임원. 구역장 일부 개편
선교부 차장 이성로(스테파노), 교육부 차장 이종욱(스테파노) 노송동 구역장 이경순(막달레나)
3. 자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
4.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십자가의 길 (사순절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미사 후 공동으로(십자가의 길)을 걸겠습니다)
6. 신용조합 윌레회 (3월 14일밤 8시)
7. 애령회 특별헌금 있음
□ 출판물 보급 특별 헌금 5,820원
지난 주일 봉헌금 27,173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남원 누계 50,000원 덕진 누계 50,000원
복자 누계 1,265,000원 서학동 누계 314,800원
이영숙(2만원), 박장춘, 이거영, 최상익(각1만원)

서명덕(800원)
전동 누계 1,715,000원 중앙 누계 2,366,000원
남노 김창영(1만원), 태평 2 노원식(5천원), 서노 김복례(5천원), 금암 김춘선(2천5백원)

아크릴, 페인트, 간판제작, 실크특수인쇄
페난트, 전주광고

월세계 광고사

(교우에게 특별 할인)

대표 이상신(바오로)

전주극장 동편 전화 6109 7447

※각종 양부.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옆 (전화 22212)

김병구(빈첸시오)